

인문계(2교시) 문제 해설

1. 출제의도 및 문제 구성

2016학년도 논술고사(인문 2교시)의 주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서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의 II단원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제목으로 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출제진은 이 주제를 통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그 현실적 적용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논술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주제를 그대로 추출하고, 제시문과 자료 또한 교과서 및 EBS 교재에서 발췌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최대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문제 1] 요약형 문항으로, 5개의 제시문들을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사회 실재론 입장인 제시문 3개와 사회 명목론 입장인 제시문 2개를 찾은 다음,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2] 평가형 문항으로, 제시된 <자료 1>의 채용 패턴을 해석하여 면접관들의 채용 패턴이 학연이라는 연줄의 영향, 즉 사회구조(연결망)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해석한 뒤(사회 실재론의 입장을 확인), 이를 활용하여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비판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3] 설명형 문항으로, 제시된 <자료 2>를 정확히 해석하여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특히 한국의 변화 양상이 보여주는 특징이 정부지원의 상대적인 미비로 인한 제도(환경)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에서 사회 실재론 입장에 근거할 때 설명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

[문제 4] 대안 제시형 문항으로, ‘토지수용제도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두 입장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관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수험생 자신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입장의 선택을 논리적 관점에서 잘 논술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2. 채점기준 및 문항해설

[문제 1]

■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의 작성 포인트는 각 제시문 안의 핵심용어 및 핵심 문장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각 입장의 논지를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크게 사회가 개인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회 명목론으로 대별된다. 제시문 1, 3, 5가 전자에 속하며, 제시문 2와 4가 후자에 속한다. 각 제시문별로 논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시문 1: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 개인에게 강요되거나 강제 된다.
- 제시문 2: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는 오직 개인 뿐이며, 유의미한 의식 또한 개인적인 것이고,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
- 제시문 3: 국가는 개인에 앞서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국가는 전체며, 개인은 그 부분이기 때문이다.
- 제시문 4: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자연권이다. 국가는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제시문 5: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은 생명체를 위해 존재하는 각 기관처럼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없는 존재가 된다.

■ 채점 포인트

- ① 제시문의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 ② 각 입장의 논지를 올바르게 기술하였는가?

③ 사회 실재론 대 명목론의 대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문제 2]

■ 문항 해설

[문제 2]는 제시된 <자료 1>에서 면접관들의 채용 패턴이 학연이라는 사회구조(연결망)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해석한 뒤(사회 실재론의 입장을 확인), 이를 활용하여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비판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실재론과 연관지어 <자료 1>에 나타난 채용 패턴을 해석

- 채용 패턴: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가 동일할 때 채용자 수(채용률)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면접관/지원자의 능력, 출신대학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학연으로 나타난 사회의 연줄구조가 개인의 판단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사회적 구조는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명목론을 비판

-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조(학연)에 영향을 받음

■ 채점 포인트

- ① 채용 패턴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② <자료 1>을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실재론과 잘 연관지었는가?
- ③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명목론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가?

[문제 3]

■ 문항 해설

[문제 3]은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이와 연관지어 한국 상황의 특이점을 찾아내 그 원인을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임

① <자료 2>를 해석하는 단계

-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은 1980년 음(-)의 관계였지만 2010

년 양(+의 관계로 변화하였음

- 하지만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과 달리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증가하자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1980~2010년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약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화는 거의 없음
- 이에 반해 한국은 약 10% 정도의 여성고용률 증가에 비해 출산율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함

② 원인을 설명하는 단계

-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서 출산·양육의 문제는 개인적 행동이나 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제도와 구조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문제임
- <자료 2>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출이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채점 포인트

- ① 1980년, 2010년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했는가?
- ② 한국의 예외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했는가?
- ③ 한국의 예외적 상황을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

[문제 4]

■ 문항 해설

[문제 4]는 [문제 1]의 두 관점인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근거로 하여 ‘토지수용제도’를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두 입장 각각에 대해 정당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수험생 자신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며, 찬반의 각 입장을 두 관점 중 각 하나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사회 실재론의 관점에 기반해 보면 정책과 제도 등은 사회(혹은 집단이나 공동체)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고 개인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제도를 수용하는 선택, 즉 찬성 입장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반면에 사회 명목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토지수용제도는 수용할 수 없는 선택, 즉 반대 입장과 연결된다.

■ 채점 포인트

- ① 토지수용제도의 찬성견해를 사회 실재론의 관점과 연결하고, 반대입장을 사회 명목론의 입장과 연결하고 있는가?
- ② 찬성 혹은 반대의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③ 서술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